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7년 4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4.(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4. 4. (화)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재준 과장 (044-203-4080)	담 당 자	송상현 사무관 (044-203-4086)

'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7. 4. 4 (화)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 및 코트라(KOTRA)의 외국인투자통계를 바탕으로 **2017년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ㅇ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3월 31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

ㅇ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 발표**되며, 상반기(2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17년 7월 초순경 발표예정**

'17.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38.5억 달러(△9.2%), 도착 27.7억 달러(+38.1%)

1. 종합 평가

□ '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착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8.1% 증가한 27.7억불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신고기준으로는 38.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9.2%) 5년 평균치 (37.2억불)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 세계적인 투자관망세를 감안할 때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평가

【 연도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억불)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평균	2017
1분기	신고	23.5	33.9	50.6	35.5	42.4	37.2	38.5
	도착	18.2	14.9	37.7	32.2	20.1	24.6	27.7
전체	신고	162.9	145.5	190.0	209.1	213.0	184.1	-
	도착	107.1	98.8	120.8	165.1	103.2	119.0	-

2. 국가별 동향

◈ 주요 투자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신고·도착 모두 감소했으나, 중화권(중국, 홍콩, 싱가폴, 말레이, 대만)과 일본은 큰 폭의 증가세

미국 (신고 3.65억 달러 △33.5%, 도착 1.93억달러 △42.6%)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특히 미국의 대(對)개도국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대한(對韓) 투자도 감소세

* '16년 미국 해외직접투자 2,990억 달러(△1.4%) 중 대(對) 유럽연합(EU) 2,079억 달러(6.0%↑), 대(對) 일본 58억 달러(98%↑)
* 업종별 증감율(신고) : 제조 △53.5%, 서비스 +164.0%

유럽연합(EU) (신고 8.76억 달러 △50.3%, 도착 10.18억 달러 △7.0%)

□ 브렉시트, 정치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유럽연합(EU) 발 대외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대한(對韓) 투자도 1억 달러 이상 대형투자 중심으로 감소세

* '16년 유럽연합(EU)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2,921억 유로로 '15년 대비 64.4% 감소
* 유럽연합(EU)발 1억 달러 이상 대형사업 ('16.1Q) 11.8억 달러 → ('17.1Q) 3.5억달러 (△70.3%)
* 업종별 증감율(신고) : 제조 +211.0%, 서비스 △73.9%

중화권 (신고 19.38억 달러 +35.1%, 도착 9.92억 달러 291.0%)

□ 금융·보험, 부동산 개발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홍콩, 싱가폴 등 중국 外 중화권의 투자가 대폭 확대

* 중화권 투자 증감율(신고) : ('16.3Q) △36.0% → (4Q) △7.1% → ('17.1Q) 35.1%
* 중국 외 중화권 투자 증감율('16.1Q → '17.1Q) : 신고 +67.5%, 도착 +366%
* 업종별 증감율(신고) : 제조 △57.7%, 서비스 +59.5%

일본 (신고 4.07억 달러 +153.0%, 도착 2.04억 달러 +18.3%)

□ '15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신고기준), 소재·부품 분야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콘텐츠, 부동산 개발 등 서비스 분야도 증가 추세

* 일본 투자 증감율(신고) : ('15.3Q) △54.6% → (4Q) △44.7% → ('16.1Q) △44.3% → (2Q) △22.3% → (3Q) △12.7% → (4Q) △23.5% → ('17.1Q) +153%



* 업종별 증감율(신고) : 제조 +64.7%, 서비스 +279.0%

3. 업종별 동향

◈ 제조업은 신고·도착 모두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도착기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

제조업

□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23.1% 감소한 9.71억불, 도착기준으로는 27.4% 감소한 4.66억불을 기록

○ 다만, 의료용 로봇, 시스템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 (의료용 로봇, A사, 9백만불) 수술용 로봇기기 임상실험 및 교육훈련을 위한 수술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증액투자
* (반도체, B사, 75백만불) 시스템반도체 전문 업체에 대한 증액투자

서비스업

□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4.5% 감소한 28.2억불, 도착기준으로는 72.1% 증가한 23.1억 달러를 기록

□ 금융·보험, 음식·숙박 등 분야는 증가한 반면,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는 감소

4. 유형별 동향

□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국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신고(30.6억 달러, △4.4%)와 도착(17.1억 달러, △11%) 모두 감소했고,

○ 인수합병(M&A)형 투자는 신고(7.93억불, △24%)는 감소했으나, 도착(10.7억 달러, 1,049%)은 사모펀드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5. 향후 전망 및 대응 계획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연간 FDI중 1분기 비중(5년 평균) : 신고 20.2%, 도착 20.7%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국제 경기회복으로 올해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 속도, 주요국 경제정책 방향, 브렉시트 등 대형 사건이 많아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17.2월)

□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 홍콩, 싱가폴 등 중화권 투자유치설명회(IR) (3월)에 이어, 상반기중에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현장지원(아웃리치) 활동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 주한 외국기업과의 소통 강화, 신산업분야 현금지원 확대 등 주요과제도 지속 추진.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송상현 사무관(☎ 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